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배*라
파견국가	호주	파견도시	멜버른
파견대학	빅토리아 대학교	파견기간	2015.07.04 ~ 2016.06.30
귀국여부	예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멜버른 도심부분에 시티 캠퍼스, 도시의 외곽쪽에도 캠퍼스가 위치하여 있습니다. 어학계열쪽은 외곽쪽 캠퍼스에 수업이 있으며, 상경계열 분야는 도심쪽 캠퍼스에 위치하여있습니다. 한국인 교환학생은 거의 없는 분위기여서 외국인 친구들과 거의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듣게 됩니다.
2013-2학기 수업	2학기에는 전공 수업을 위주로 들었는데, 'Working Class writing' 'Studying Poetry and Poetics' 'Romance and Realism in the 19century novel'이었습니다. 수업은 한국에서의 전공과목과 비슷한데, 영어로 진행되는 것만 다릅니다. 매 주 읽어야 할 책과 작품이 있고 공부를 해온 후에 교수님의 한 시간 강의와 자신이 주제를 하나 선택하여 발표하는 형식입니다. 발표는 매 수업당 필수이며 중간중간 수업내용에 관한 퀴즈를 두 번 정도 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에세이 대체입니다. 에세이는 참고 자료가 책이나 학문적인 기사로 꼭 있어야 하며 한국보다 기준이 까다롭고 어려운 편입니다.

2014-1학기 수업	저는 처음 학기에는 교양과목인 Cultural differences라는 수업을 듣고 문화적 차이와 유년시절에 두 가지 언어를 가진 부모님 아래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는 아이의 언어 발달 양식과 같은 내용을 배우고 인터뷰나 동영상 등을 통해 참고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거의 시험은 수업 중간중간의 퀴즈와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에세이로 대신하는 형식입니다. 호주에서는 lecture와 tutorial이라는 두 가지 수업방식이 있는데 한 시간의 강의 후에 소규모의 친구들과 교수님과 함께 수업내용에 대하여 토론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학생들의 발표를 듣는 형식으로 투토리얼이 진행됩니다. 한국에서 보다 더욱 적극적인 수업태도가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운영	교환학생을 위한 파티나 활동은 좀 있는 편이나 자유로운 분위기여서 선택사항입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멜버른은 날씨가 하루에도 사계절이 있다며 계속해서 바뀌는 날씨의 형태입니다. 겨울에는 한국보다 기온은 높지만 바람이 많이 불고, 여름에는 햇빛이 매우 뜨겁습니다. 밤낮으로 기온차이가 심해서 항상 겹옷을 들고 다녀야 합니다.
안전	외곽 쪽에 있을수록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기숙사에서 지내서 항상 안전요원이 있고, 학교 바로 앞이다 보니 안전한 편이었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에서 지냈는데, 비용은 비싼 편이지만 안전을 위해 기숙사를 택했고 교환학생으로 온 친구들과 만나고 지내기에 좋은 편입니다. 거의 방은 혼자 쓰는 형식이고 기숙사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식사	여기에서는 기숙사에도 음식 하는곳과 기본적인 기구는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친한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서 먹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시간이 맞을 때에는 친구들과 같이 만들어 먹거나 시간이 없는 때에는 사먹는 것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교통	학교 바로 앞에 기숙사가 있어서 걸어 다니고 조금 멀리 위치한 기숙사에서는 시내버스나 학교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직항이 없기 때문에 항상 경유해야 했고, 한 번 가는 데에 100만원 이상 지불되었습니다.	왕복 200이상
Fees	호주는 물가가 비싼 데,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용돈으로 사용하였고, 거의 남는 정도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한 달에 80만원
보험료	일반 학생보험을 택함	10만원 이상
숙소	기숙사	주 200불
식비	일주일당 한 두 번 정도 장을 보았고 한 번에 20불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다.	일주일당 2-3만원정도
교통비	2주에 20불	한 번 타는데 4불정도
책값	수업마다 상이함 거의 인쇄하여 책을 구매하지 않음	책은 보통 20불 정도
기타1		

기타2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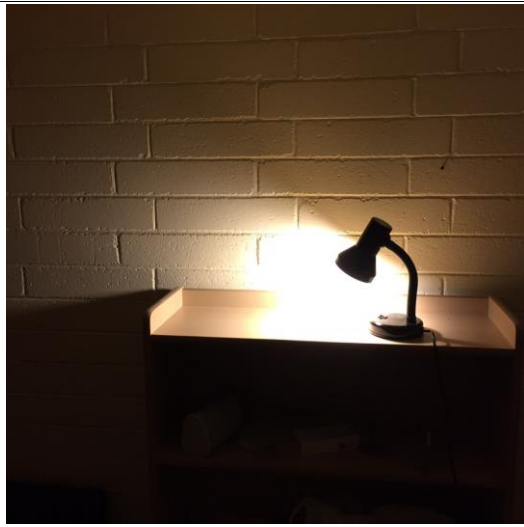
5. 출국 전 준비사항

한국에서 외국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를 만들어서 와도, 현지에서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이 되지 않거나 수수료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현금으로 환전해온 후에 현지 은행에 가서 체크카드를 만드는 형식으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비용을 제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한국처럼 난방시설이 없으니 전기 장판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외국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모든 것을 혼자서 해야 하고 제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주지 않으니 독립성이 제일 먼저 길러지는 것 같습니다. 기숙사를 옮기거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영어로 의사소통 해야 하며 한국처럼 빠른 시스템이 아니므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새로워서 힘들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다 좋은 영향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경험이고 일 년이 짧은 시간이므로 후회 없는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처음 기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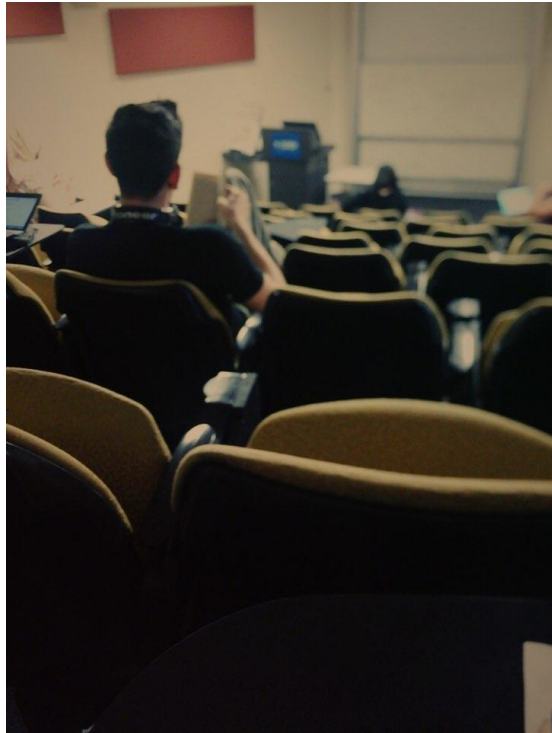
이사 한 기숙사



학교 카페



학교 식당



강의실



도서관 앞 공원